



설교학 관점에서 본 개혁사상 부흥운동

총신대 설교학 김창훈 교수

I. 개혁과 부흥 : 수레의 양 바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20년 간 한국 교회는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고, 교회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제 화려한 외관이나 그럴듯한 규모만을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하거나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반성하고 점검해야 하며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민족 복음화나 세계 선교가 아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병행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내적 정비라고 판단된다. 한 마디로, 교

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1.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 세속화와 이교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이교화(異敎化)이다.

먼저,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이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성공지상주의'와 '물량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로 유입되었다. 많은 교회가 양적인 확장을 교회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어야 하는데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정치와 감투싸움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치적 실권을 잡고 이권을 챙기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고 법적 소송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추악한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된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성공, 명예, 물질 등에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최소한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교화이다. 이교화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사라지고 다른 종교와 구별이 없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의 이교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기복주의 신앙과 신유나 기적을 최우선시 하는 신앙이다. 물론 성경에서 '복'은 참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은 복된 삶을 강조한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데 있다. 시편 1편

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고, 산상 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다른 종교나 범신론적 샤머니즘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녀가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세 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등이 최고의 복인 것처럼 강조하고, 그러한 복을 위해서 열심과 헌금과 봉사를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유와 기적을 신앙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기적적인 일들, 병 고침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이성과 과학과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함으로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감격적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신앙의 최우선적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적적인 일들과 병 고침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건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하면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찾아다니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샤머니즘이다.

2. 개혁과 부흥 : 수레의 양 바퀴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서 이탈한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개혁(Reformation)' 과 '부흥(Revival)' 이다.

1) 개혁과 부흥의 정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많은 제도와 전통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

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왜곡되거나 악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고수했던 제도나 전통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혁은 성경에 어긋나 있는 잘못된 교리나 제도를 바꾸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흥은 무엇인가? 그동안 부흥이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는 경향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은 일차적으로 '다시 살아나는(Re-vival)' 것이고, '신앙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회복' 하는 것이다. 제임스 팩커의 부흥에 대한 정의는 인용할 만 하다. "부흥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고, 맥 빠지고 활기 없는 크리스천에게는 내적 삶을 갱신시킨다. ... 부흥은 교회를 생동력 있게 하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그 사회에 영적, 도덕적 충격을 준다."¹⁾

2) 수레의 양 바퀴로서 개혁과 부흥

한국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옳지 않는 교리와 잘못된 제도들을 바꾸어야 하고(개혁), 신앙의 내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부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리와 제도의 개혁과 영적인 부흥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만 진행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영적인 부흥 없이 개혁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독단적인 교조주의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나 외형주의가 될 수 있다. 또한 개혁이 없이 영적인 갱신과 부흥만 강조되면 그 갱신

1) James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0), 36.2) 이 글에 인용된 사도행전 본문은 박형대, 『사도행전 원문강독』 (서울: 그리스, 2015)의 번역을 따른다.

과 부흥은 지속되지 못하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개혁과 부흥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오늘날 교회 회복의 원형인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지상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쇄신하는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다. 따라서 종교 개혁은 개혁과 동시에 영적 부흥이었다.”²⁾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부여하였던 이상규의 평가는 옳다.

나가면서

필자와 접근 방식과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쉐이퍼의 말을 소개하면서 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 세대의 교회에는 개혁, 부흥, 그리고 건설적 혁명이 필요하다. 흔히 개혁(reformation)과 부흥(revival)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단어 모두 ‘회복하다(restore)’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개혁은 순수한 교리를 되찾는 것이고,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되찾는 것이다. 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부흥은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교회사의 위대한 순간들은 항상 개혁과 부흥이 동시에 실행될 때 찾아 왔다. 다시 말해, 교회가 순수한 교리로 되돌아가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맛보며 살게 된 때에 온 것이다. 개혁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는다. 부흥 없이는 개혁도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개혁과 부흥이 함께 진행될 때 우리 시대에 혁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진보적인 교회에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도 창조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개혁과 부흥의 실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즉, 순수한 교리를 되찾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교회를 회복함으로 이 천박하고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³⁾

II. 설교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글에서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개혁과 부흥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설교와 설교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교회의 위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강단에서의 바르지 못한 말씀 선포가 그러한 위기의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왜곡된 말씀의 선포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물론 강단의 위기는 설교자와 성도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먼저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허전함을 느끼고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기 못하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설교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단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밭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강단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사람의 심령의 밭(영적인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설교의 위기는 설교자와 청중의 문제가 겹친다. 그러나 필

2) 이상규, 『교회 개혁과 부흥운동』 (서울: SFC, 2004), 46.

3) Francis A. Schaeffer, Death in the City (Chicago: Inter-varsity Press, 1969), 12.

자는 궁극적으로 설교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설교자(목회자)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묵은 땅을 경작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할 책임까지도 설교자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설교자의 관점에서 강단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설교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논하고자 한다.

1. 강단 위기의 원인

먼저, 건전하지 못한 설교관이 문제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교인 수(數)'다. 그러한 목회의 관심과 방향은 설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교인 수가 최고의 목표인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성경적이고 바른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설교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그저 '뽕 잡는 것이 매다!'는 식의 설교를 한다. 그들 가운데는 청중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모방하는 분들도 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교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르고 건전한 설교관이다. 다시 말해, 설교자의 최우선적 관심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설교여야 한다.

다음으로, 너무 많은 설교 횟수와 사역으로 인한 설교 준비의 부족이 문제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설교자가 감당해야 하는 설교의 횟수와 양은 너무 많다. 특히 소형교회에서 혼자 설교 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0번 이상, 일 년이면 500번 이상 설교해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교회는 설교 외에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사람의 지식과 역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선하고 영양가가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마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설교 학자들은 대개 1분 설교하는데 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많이 양보하더라도 1분 설교하

는데 30분은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의 30분 설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준비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설교를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한 편의 설교를 위한 해산의 수고가 부족함이 문제다. 주변의 설교자들 가운데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을 자주 본다. 물론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설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창조질서이다. 쉽고 편하게 설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은 일종의 '죄'다. 크리스토퍼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깊은 묵상과 많은 노력을 통한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강단이 살아날 수 있다.

2. 설교자의 자세

그러면 강단의 회복을 위해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설교가 목회의 전부는 아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심방, 상담, 행정, 그리고 외부 활동(노회나 총회 또는 동료들과의 모임)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목회의 최우선 순위에는 설교 사역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최우선의 사역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임을 확신하였기에 사역의 다른 부분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과감하게 위임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목회자가 설교 사역의 우선순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목회의 방향과 사역의 시스템에서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적으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목회자 사역의 상당한 책임을 그들에게 위임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설교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때 설교를 위해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다.

다음으로 설교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의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하였다(약 3:1).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렸을 때 또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들었던 설교가 평생 그 사람의 신앙과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설교가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성공과 실패 또는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미칠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때 아무렇게나 또는 손쉽게 설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설교는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설교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설교가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면 어떻게 평생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느 목사가 “설교는 어려워도 설교 준비는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필자는 그 고백이 모든 설교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기쁨을 경험해 보았는가? 또한 깨달은 진리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것은 너무 신나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설교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될 때 설교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자기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신학교 3년 동안 배웠던 지식은 실제 목회에서 3개월이면 바닥난다고 한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본격

적인 사역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이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공부와 연구는 평생 과업이며, 특히 자신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설교자가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강단의 회복을 위해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설교해야 한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히 4:12).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마다 다양한 설교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물론 설교의 은사와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설교자는 베드로, 바울, 루터, 칼빈,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빌리 그레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설교 사역의 결과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그저 목회자니까, 또는 설교의 순서를 맡은 사람이니까 설교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것으로 믿고 설교해야 한다.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설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제 2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Ⅲ.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회복하자

지난 글에서는 한국 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교자의 관점에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설교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설교 내용과 전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 한국 교회 강단의 현주소

필자는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왜곡 또는 변질'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사회적 타락을 보면서,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고 진단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Walter Kaiser가 지적한 대로 그 원인은 "온갖 조미료가 들어 있는 음식과 이상한 대용식으로 청중들이 양육되기 때문이다." 말씀의 원래 의미가 왜곡되거나, 말씀에 조미료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말씀의 원래 맛을 상실해 가고 있다. 실제로 요즈음 본문의 바른 해석이 포함된 설교를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말씀보다는 행사나 이벤트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시도하는 현상 때문에 말씀의 기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적용 중심의 설교'로 흘러가고 있다. 적용은 설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본문을 주해하여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적용에만 집중하는 설교 또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러한 설교는 장기적으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극단적으로 적용 중심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적용이 왜곡되거나 피상적이기도 하다. 본문의 바른 해석과 바르고 효과적인 적용

은 설교를 세우는 두 개의 버팀목인데, 요즈음은 두 버팀목 모두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세 번째로, '필요 중심적 설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디모데후서 4:3은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한다.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설교자의 책임은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청중의 신앙과 삶에 연결하여 전하는 것이다(딤후 2:15).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을 모으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청중의 입맛에만 맞추는 설교를 한다. 물론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에 예민해야 하고, 또한 청중의 필요는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청중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인기가 없더라도 그들에게 진정 유익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한 설교가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 번째로, '흥미 위주의 설교'가 강단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Fred Craddock이 지적한 것처럼, 설교는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고 전해져야 한다. 소위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들리는 설교'를 위해 설교의 본질이 퇴색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설교자들이 흥미 위주의 설교 구성과 지루하지 않는 전달에 우선적 또는 지나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설교의 본질이나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물론 위의 네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말씀의 왜곡 또는 변질은 당연히 부적절한 적용을 낳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필요 중심적 적용과 흥미 위주의 설교는 말씀의 변질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2.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의 회복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 강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God-

Centered Preaching)의 회복이다.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필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해하여, 적용으로 연결하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 주해,' '하나님 중심적 적용,'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전달'을 포괄한다.

1) 하나님 중심적 주해

'하나님 중심적 주해'는 본문에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여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래의 독자(또는 청중)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본문이 쓰여 졌거나 선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뜻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해석학에 익숙해 져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 본문을 주해할 때 설교자는 문맥, 단어, 문법적 관계(또는 구문론), 그리고 역사적/문화적/지리적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본문에 항상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한다거나 모든 본문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본문에 따라서 문맥이나 구문론이나 단어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 중요할 때도 있고, 그 가운데 한두 가지가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설교자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활용하여 본문을 주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주해와 관련하여 피해야 할 몇 가지 함정(pitfall)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 '영해,' 또는 '도덕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접근들은 본문을 피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또는 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2) 하나님 중심적 적용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위해 중요한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 중심적 적

용'이다. 하나님 중심적 적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 적용은 본문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충실한 '바른 적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본문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본문에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적용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유익이나 변명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예를 들어, 교회당 건축이나 교회의 특별한 행사 등) 아전인수 격으로 적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의 특별한 목표나 사역과 관련하여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항상 성도들도 동의할 만한 바른 적용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 중심적 적용은 '진정한 필요(actual need)'를 채우는 적용을 의미한다. 설교자는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 또한 설교를 통해 그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는 '표현된 필요'(expressed need: 설교의 대상인 교회에 의해 직접 표현된 필요) 뿐 아니라 '표현되지 않지만 진정한 필요'(unexpressed actual need: 교회에 의해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또는 설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믿음과 사명과 삶을 위해서 채워져야 할 필요) 모두를 파악하고 채워야 한다. 만약 표현된 필요와 표현되지 않는 진정한 필요가 대립된다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 적용은 '복음(예수 그리스도)'이 적용에 있어서 기초와 중심이 되는 복음적 적용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와 사역은 인류의 '구속'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최고의 의무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전파하는 것임을 말씀한다. 만약 이 견해에 동의한다면, 하나님 중심적 적용은 당연히 복음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복음(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어야 하며,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적용도 복음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3) 하나님 중심적 전달

'하나님 중심적 전달'이란 한 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설교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설교를 준비하여 전달하고, 설교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믿는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신설교학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많은 설교자들이 전달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의존보다는 방법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전달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설교자의 수고와 노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설교자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전 2:4)”고 고백하며,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늘 기억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일반 연설과 설교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전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

나가는 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또한 설교자가 성도의 필요와 흥미에만 급급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해하여 적용으로 연결하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 설교가 강단에서 회복될 때 한국 교회는 제 2의 부흥과 도약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